

## 초·중·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Teachers' Perceptions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and Home Reared Children

이 순 형\*

Yi, Soon Hyung

이 혜승\*\*

Lee, Hae Seu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eacher's perceptions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compared with home reare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teacher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majority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regarded as not very much different from home reared children. Still, findings from this study lead to conclusions that institutionalization is likely to elevate children's risk for adjustment problems such as social withdrawal, peer violence, and academic failure. Findings that the ratio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ttending school decreased with age lead to speculation that failure in psychosocial adjustment may lead to dropping out of school. Finally, a practical framework for the optimal develop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is provided, with emphasis on school-community based interventions.

**Key Words :** 시설아동(institutionalized child), 사회심리적 적응(psychosocial adjustment),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교사의 지각(teacher's perception)

\* 접수 2002년 4월 30일, 채택 2002년 5월 22일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ysh@snu.ac.kr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I. 서 론

최근 5년간 통계청 및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의 증대, 이혼의 증대 및 편부모 가정의 증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 편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2000년도에는 17.0%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특히 1997년 말 IMF의 긴급 지원 사태까지 초래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왔고 이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대책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은 부모의 사망이 주원인 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부모의 이혼·별거·가출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영유아의 경우는 미혼모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자료, 2001). 최근 10년간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모두 199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그 후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은 1998년도에 시설보호아동은 5,112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위탁보호와 입양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도에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는 약간 줄었으나 위탁보호와 입양 및 전체 요보호아동의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증가는 시설입소, 거택보호로서의 소년소녀 가정, 입양, 가정위탁보호의 결과 등을 유발한다. 시설입소나 입양 등의 경우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에 비해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가족해체가 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Kadushin & Martin, 1988). 변용찬과 이상현(1998)이 아동복지 수용시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아동 가운데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아인 경우가 22.9%, 미아인 경우가 5.0%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쪽이 사망한 고아의 경우는 6.2%에 불과하고, 친부모 중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최소한 61.6%이다.

가족해체로 인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의 경우는 적절한 발달과업을 이룩하기에 적합한 1차 환경인 가정을 이탈하여 성장한다.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성격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찍이 Bowlby(1965)는 모정 상실로 갖게 되는 아동들의 부정적인 특징을 지적하였다. 이에는 파괴적인 인간관계, 친밀감 결여, 정상적 정서적 반응의 부족, 거짓말, 도벽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부모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직업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낮은 기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강복정·이정덕, 2000). 현대화와 산업화에 의한 가족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해체가 현실이라고 해도 아동을 위한 보호는 여전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성격특성과 생활적용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출경험(11배), 장기결석, 흡연경험(3배), 자살충동의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아 시설아동들의 사

회적 부적응이 관찰되었다(신소희, 1984). 시설은 서로 다른 아동, 양육자, 직원들의 다양성 속에 서로를 맞추어 가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된다. 시설아동 대다수가 시설생활의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반면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 노혜련과 장정순(1998)의 연구결과는 보호시설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시설아동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대인 관계 형성에 제한점이 있다고 한다.

외국의 여러 연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부모로부터 유기된 경험에 의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Frank, Klass, Earls, & Eisenberg, 1996; Pringle & Bossio, 1967; Tizard & Hodges, 1977). 최근의 한 연구(문진명, 2000)에서도 시설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시설아동의 성격특성은 일반아동의 성격특성과는 달리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여 자기존중감이 낮으며, 특히 자신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지각하여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에 민감하고 자기평가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설아동은 단체생활을 통해 개방적인 따뜻한 감정의 교환과 안정감의 상실로 전전한 인성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일과에 따르는 생활습관 때문에 자주성, 창의성의 부족을 초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소극적·비협조적·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며

잘 해도 소용없다는 좌절감이 강하고, 유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각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주정일·이소희, 1989).

최근에는 일반가정아동과의 비교 연구에서 벗어나 시설아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늘고 있다.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복정과 이정덕(2000)의 연구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시설출신자 스스로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자궁심이 없고 깊은 열등감을 지닌 것이 더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아성장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응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아동들이 자신이 부모에게서 버려졌다는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족, 친구, 후원자, 보육사, 원장 등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 수치심, 열등감을 나타내고 폐쇄적 태도,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을 보인다고 한다.

유안진과 민하영(2001)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는 입소 사유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자아정체감이 낮고 내적인 통제 소재가 낮을수록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자아정체감에 따라 시설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적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한편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이순형·이강이·성미영, 2000)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경우 입소원인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시설아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

구는 주로 보호시설 자체의 관리운영과 수용보호 실태에 관한 것(박태영, 1991; 이배근, 1993; 변용찬·이상현, 1998)과 일반가정아동과의 비교연구(김민자, 1991; 신소희, 1984)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시설아동의 입장에서 관련 변인들을 파악한 연구가 늘고 있다(유안진 외, 2001; 이순형 외, 200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시설아동 자신이나 시설보육사를 통한 설문지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호시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보호시설의 역할이 결국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면 시설아동이 보호시설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어떤 두드러진 다른 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기를 벗어난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아동들이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습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올바른 성장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것이다(권이종, 1996). 보호시설과 학교의 궁극적 목적이 같다고 하면 시설아동의 학교내 바람직한 적응은 장래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사회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시설아동에게 합당한 교육적·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아동의 적응 상태가 일반가정아동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설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설아동이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면 이로 인해 고립감, 소외감, 학교공포감, 불안감, 행동장애, 과잉순종, 학교기피, 도벽, 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사회심리적 적응양상과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을 고려하여 아동, 보호시설,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환경적·심리적 요구를 파악하여 상호작용에 대한 장벽을 개선함으로써 시설아동의 바람직한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김상호, 1993).

교사 입장에서 일단 시설아동을 부적응학생이라고 인식하면 시설아동은 무관심 혹은 방치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많다.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학생을 위한 적절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서 시설아동은 스스로도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설아동의 심리적 위축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신체적 증상이나 행동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설아동의 개인차를 인정하더라도 교사가 지닌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시설아동의 연령(초·중·고교별)과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따라 학교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문제행동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면 부적응의 위험이 특히 큰 집단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택형 질문을 통해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문제

행동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과 함께 개방형 서술 문항을 통하여 시설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교사들이 제시한 개방형 질문의 서술형 답변을 분석해 봄으로써 선택형 질문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시설아동의 적응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기존연구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분석연구 (연구문제 1, 2, 3번) 및 서술형 질문을 통한 질적 분석 (연구문제 4번)으로 살펴보자 한다.

**연구문제 1.**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의 문제 행동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는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로 다른가?

**연구문제 4.** 교사가 생각하는 시설아동의 장래, 시설아동에 대한 인식, 시설아동의 문제점, 시설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을 위하여 우선 아동보호시설(육아시설, 보호치료시설, 종합시설)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시설의 보호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를 알아보았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소재의 신고된 아동보호시설 전체 중에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및 종합시설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총 63부의 설문지를 우편 배부하여 각 보호시설별로 보호아동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순서대로 5개교씩 적어내도록 하였다. 그중 3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60%) 아동보호시설의 원장들이 보호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총 178개의 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45개교(전체 응답 학교의 25%)를 추출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상 서울, 대전, 전북 지역의 전체 학교 중에서 시설아동이 재학중인 학교들이 과다 표집되었음을 밝혀둔다. 지역별 조사 대상 학교 및 교사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표집 학교 및 교사수

지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비 고
서울 (대도시)	6(266)	6(171)	6(142)	18(579)	여중 1개교 여고 2개교
대전 (중소도시)	4(122)	5(78)	3(51)	12(251)	여중 2개교
전북 (농어촌)	5(120)	5(115)	5(102)	15(337)	여중 2개교 여고 2개교
합계	15(508)	16(364)	14(295)	45(1,167)	

주 : 팔호 안은 교사수를 나타냄.

##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와 보호시설 전문가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질문 8문항, 문제 행동에 관한 질문 7문항, 건강 및 신체 발달에 관한 질문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급 내 시설아동의 수 및 증가여부, 최근 3년간 시설아동을 담임했는지 여부, 및 교사에 대한 질문(응답교사의 성별, 연령 및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선택형 질문은 모두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Cronbach의 계수는 사회심리적응척도가  $\alpha = .83$ , 문제행동척도가  $\alpha = .87$ , 건강과 신체발달척도가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사가 예상하는 시설아동의 장래, 시설아동에 대한 인식, 시설아동의 문제점, 시설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시설아동

을 위한 제안등에 관한 5문항의 개방형 서술 질문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절차

조사대상 교사 1,167명중에서 우편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는 821명(응답율 70.4%)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부실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56부와 최근 3년간 시설아동을 담임하지 않은 교사 7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693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의 Cronbach의  $\alpha$  계수, 기술통계, 이원변량분석, Tukey HSD 사후 검증 등을 통해 통계 분석되었다. 개방형 서술 문항은 응답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정리 기술하였다.

##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응답 교사의 성별, 연령, 교사근무기간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 교사의 성별, 연령 및 근무기간

성별	응답자 수(명)	평균 연령(세)	평균 근무기간(년)
남자	236	42.6	17.3
여자	457	37.9	14.5
계	693	39.5	15.4

조사에 응한 교사들에 의하면 학급아동 중에 시설에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수는 전체 학급학생수의 1.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령기 아동(초·중·고)의 약 0.2% 가 시설아동인 것을 볼 때 본 조사의 경우 5배 가량 과다 표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연구의 목적상 시설아동이 재학중인 학교를 집중 표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학급 아동의 비율이 늘었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 45.4%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였다(평균 2.99,

표준편차 .91).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 위기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가 증대됨에도 시설아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해체에 따른 부모의 이혼·별거·가출 등으로 양친부모와 살지 않는 아동의 수가 늘고는 있지만 시설수용이 그에 대한 방안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다. 초·중·고교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1.59%) 중학생이 그 다음으로(1.13%), 고등학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7%).

한편 시설아동의 건강에 대한 조사결과를 <표 3>에서 보면 시설아동의 영양이나 발육상태는 일반 가정아동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병치료를 한다거나 질병을 앓는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사들이 볼 때 시설아동의 기본적 영양공급이나 의료서비스 수준은 일반가정아동보다 뒤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한 시설아동의 건강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 수(명)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	3.13	.87	693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발육상태가 좋지 않다.	3.08	.88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잔병치료를 자주 하는 등 허약하다.	3.00	.83	690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장기 질병이 많다.	2.89	.81	686

주 : 응답 자료 누락으로 응답자 수가 다름.

## 1.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를 보이는가?

현재 학급내 시설아동이 있거나 최근 3년 동안 시설아동을 담임한 경험이 있는 교사 691명의 응답에 의하면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학급활동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311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200명(28.9%),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이 91명(13.2%)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74명(10.7%)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명(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대체로 시설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학교생활에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설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교사 690명중에서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친구가 적은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249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221명(32.0%)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62명으로 9.0%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76명(14.6%)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2명(2.6%)으로 나타나 시설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대체로 친구가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또래갈등이 심하지 않고 단지 시설아동이라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많지 않다고 교사들은 응답하였다.

응답 교사 686명중에서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248명(26.2%)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교사는 272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115명(16.8%)이 ‘그렇지 않은 편’이

라고 대답했다. 보호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양보심이 적은지 알아본 결과 '보통 수준'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381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686명 중에서 176명(25.7%)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은 시설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의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아동은 대체로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학급활동에 소극적이고 친구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급우들과 잘 싸우거나 갈등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불 때 시설아동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일은 별로 없고 인내심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 수(명)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학급활동에 소극적이다.	3.49	.93	691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친구가 적다	3.40	.93	690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또래와 갈등이 심하다	3.06	.85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급우들과 잘 싸운다.	3.04	.94	687
일반가정아동들이 학급내 시설아동을 따돌린다.	2.81	.96	687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양보심이 적다.	3.13	.72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인내심이 적다.	3.21	.88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의타심이 많다.	3.02	.90	686

주 : 응답 자료 누락으로 응답자 수가 다름.

## 2.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를 보이는가?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에서 질문에 응답한 교사 687명 중에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215명(31.3%)이었고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265명(38.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교사 중에서 143명(20.8%)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34명(4.9%)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명(4.4%)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시설아동이 대체적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255명(37.2%)으로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교사의 257명(37.5%)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 교사 중에서 111명(16.5%)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한 교사는 24명(3.5%)에 불과했다. 한편 어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도는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도벽이 심한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는 144명(21.0%)이었고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가장 적은 10명(1.6%)으로 나타나 시설아동의 도벽은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사에 응한 교사 686명 중에서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경제관념이 회박해서 용돈 사용 등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통 수준'이라는 대답을 한 교사가 287명(41.8%)으로 가장 많아 일반가정아동들과 비교할 때 경제관념에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다.

시설아동의 학업능력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학업능력에서 '뒤지는 편'이라는 대답을 한 교사는 689명중에 30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176명(25.5%)으로 나타났다. '매우 뒤지는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도 117명(17.0%)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을 큰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 686명중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문제행동을 보이는 편'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210명(30.6%)이었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19명(46.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응답교사들은 시설아동의 경우 대체로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을 다소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5〉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한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 수(명)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3.12	.94	687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3.25	.92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어른에게 반항적이다.	3.06	.85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도벽이 심하다.	2.85	.96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경제관념이 부족하다.	2.96	.93	686
학급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학업능력이 뒤진다.	3.61	.98	689
학급내 시설아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	3.20	.87	686

주 : 응답 자료 누락으로 응답자 수가 다름.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아동은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다소 거짓말을 하는 편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나 반항심, 도벽, 경제 관념 등의 문제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업능력이 뒤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일 반적으로 시설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 3.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는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로 다른가?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가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로 다른지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6>은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점수의 평균

학 교 별	지역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명)
초등학교	서울	25.21	4.76	165
	대전	26.48	3.48	108
	전북	26.33	4.47	80
	계	25.85	4.37	353
중학교	서울	24.90	4.29	91
	대전	23.82	4.81	22
	전북	25.36	3.67	76
	계	24.95	4.12	189
고등학교	서울	23.49	3.37	77
	대전	22.00	3.90	26
	전북	23.56	3.07	41
	계	23.24	3.42	144
계	서울	24.72	4.37	333
	대전	25.36	4.13	156
	전북	25.38	4.02	197
	총계	25.05	4.23	686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용 점수가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용은 초·중·고교별[F(2, 677)=23.92 p<.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아동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사회심리적 적용은 차이가 없다. 학교와 지역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초·중·고교별 사회심리적 적용 점수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HSD 사후검증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나 초등학생(M=25.85), 중학생(M=24.95), 고등학생(M=23.24)의 평균 점수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시설아동이 고등학생일 경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보다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사회심리적 적용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생일 경우 초등학생보다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한 사회심리적 적용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교사가 볼 때 시설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적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초·중·고교별 사회심리적 적용 점수의 Tukey HSD 사후검증 결과

학교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	**

\*p<.05 \*\*p<.01

<표 9>에 나타난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점수가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서 보면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은 초·중·고교별[F(2, 677)=21.05 p<.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아동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없다. 학교와 지역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7>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에 따른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용과 문제행동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Sig.
사회심리적 적용	주효과					
	학교(A)	802.80	2	401.40	23.92**	.000
	지역(B)	66.89	2	33.45	1.99	.137
	상호작용효과(A×B)	157.83	4	39.46	2.35	.053
문제행동	오차	11362.41	677	16.78		
	주효과					
	학교(A)	4906.05	2	248.03	21.05**	.000
	지역(B)	26.83	2	13.42	1.14	.321
	상호작용효과(A×B)	97.16	4	24.29	2.06	.084
	오차	7976.42	677	11.78		

\*\*p<.01

<표 9> 초·중·고교별 및 지역별 시설아동의 문제 행동 점수의 평균

학 교 별	지역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명)
초등학교	서울	14.84	3.59	165
	대전	15.94	3.07	108
	전북	15.64	4.20	80
	계	15.36	3.61	353
중학교	서울	13.93	3.36	91
	대전	13.82	3.96	22
	전북	14.55	3.23	76
	계	14.17	3.38	189
고등학교	서울	13.71	2.88	77
	대전	12.38	3.13	26
	전북	13.59	3.40	41
	계	13.44	3.10	144
계	서울	14.33	3.40	333
	대전	15.04	3.49	156
	전북	14.80	3.75	197
	총계	14.63	3.53	686

초·중·고교별 문제행동 점수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HSD 사후검증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나 초등학생( $M=15.36$ )과 중학생( $M=14.17$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M=13.44$ )의 평균 점수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할 때 시설아동의 경우 초등학생이 중·고교생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초·중·고교별 문제행동 점수의 Tukey HSD 사후검증 결과

학 교 별	초등학교
중 학 교	**
고등학교	**

\*\* $p<.01$

#### 4. 교사가 생각하는 시설아동의 장래, 시설아동에 대한 인식, 시설아동의 문제점, 시설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시설아동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1) 시설아동의 장래에 대한 교사의 의견

개방형 서술 문항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은 시설아동이 일반가정아동과 다름없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아동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장래 사회생활을 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교사의 예상 평균치를 보면 시설아동중 14.1%는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홀륭하게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27.1%는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름없이 자라날 것으로 보았고 31.5%는 다소 문제점이 있어도 노력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시설아동의 27.3%는 일반가정아동보다 문제점이 많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설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들이 생각하는 시설아동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측은하다’는 응답을 한 교사는 422명(60.9%)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30명(18.7%)을 차지하였고 ‘대견하다’는 대답이 106명(15.4%)에 이르렀다. ‘솔직히 문젯거리로 생각한다’는 대답은 35명으로 전체 응답교사 693명중에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교사의 절반이 넘는 60.9%의 교사가 ‘측은하다’는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라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부정적

인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시설아동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문제성 많은 집단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스스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아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나 자신도 시설아동이 모범생일 경우 더욱 대견한 생각이 들고 문제아일 경우 더욱 끈질거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전북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평소에 조용하고 학습태도도 성실한 옆 반 학생이 있었다. 나중에 그 반의 담임교사로부터 보호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일이 있다. 교사로서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다(전북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많은 교사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문제 많은 부모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보다 건강이나 사회·심리적 적응 면에서 오히려 낫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응답을 보면 경제적으로 극도로 빈곤한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시설아동이 나은 환경에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에 따른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급내 시설아동들이 예의바르고 공부도 잘 할 뿐 아니라 리더십도 있다. 오히려 부모가 가출했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보다 훨씬 명랑하고 우수하다(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시설아동은 시설의 자원 봉사자나 보육교사의 순길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없고 시설의 보호도 못 받는 아이들이 더 큰 문제다(대전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 3) 시설아동의 적응 및 행동 문제점

많은 교사들이 시설아동의 피해의식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지적했다.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의 편견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시설아동 스스로 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교사가 많았다. 자기 개방을 꺼려하고 다양한 친구를 사귈 기회를 피하면서 같은 보호시설 친구들과 관계를 더 많이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시설아동들이 시설에서 생활한지 몇 년이 되었던 간에 가끔 '나만 왜 이런가', '부모가 원망스럽다',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생각으로 방황을 한다. 과거에 대한 원망, 힘든 현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대전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학급의 다른 아이들이 따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본다. 과다한 피해의식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서울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시설아동이 자신감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가 느끼는 공통점으로 여겨진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가 의견을 내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부족하여 남을 의심하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시설보호아동을 대하면 적극적인 생활태도가 부족해 일반가정아동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대전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피하려는 듯 보여지며 적극성이 없다(대전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큰 문제이다. 무엇이든지 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 덜평이처럼 자꾸 움츠러든다(서울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자신이 시설아동이란 사실을 남이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한다(서울의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시설아동의 낮은 학습의욕과 학업부진은 초·중·고교 교사들 모두가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능력을 갖췄음에도 공부할 의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라고 한다.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교사들은 또한 보호시설의 아동들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같은 보호시설의 아동들은 일상 생활을 함께 하며 형제·자매처럼 자라나는 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서로간에 주고받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주로 구타, 학대, 도벽, 가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상급생에 의한 괴롭힘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보호아동의 피해가 계속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호시설의 상급생이 하급생을 떼리거나 학대하고 도둑질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보호시설의 선후배간에 연결되어 질이 나쁜 그룹을 형성하고 가출, 폭력, 하급생 경주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생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퇴학이나 자퇴로 이어지기 쉽다(전북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어려서 보호시설의 선배에서 당한 아이들이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대전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 4) 시설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상당수 교사들은 시설보호를 받게 된 원인에 따라 보호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부모의 사망보다 이혼이나 유기로 인해 보호시설에 가게된 아동이 정신적으로 더욱 상처를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우는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는 학생과 매우 강하고 독립적인 자세를 갖는 학생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서울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보다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시설아동이 된 경우 문제가 더 많다(대전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아동이 부모의 존재를 알지만 연락이 없을 있을 경우 자라면서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사고가 깊어지면서 부모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들은 시설아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보호시설생활이 힘들어 질 정도로 부모를 찾으려고 매달리는 경우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시설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의 적응상태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잘 적응하는 학생과 그 반대의 학생으로 구분이 심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의 발달단계는 적절한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몇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 잘 적응한다. 문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이 나타난다(대전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대부분의 시설아동이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다. 특히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서울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5) 시설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제안 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시설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와 보호시설 및 관련 행정기관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교사들은 또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설아동 본인 뿐 만 아니라 학급아동들에게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학교별로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린다. 행정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대전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

"다른 학생들과 노골적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정이든 배려든 시설아동은 민감한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되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서울의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대부분의 교사들은 시설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아동의 자신감을 높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를 하게 하거나 학급 일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가 시설아동의 사소한 선행이나 성적 향상 등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성을 기르는 방안, 한 반의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족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 보호시설의 학습환경 개선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설아동을 담임해 본 초·중·고등학교 교사 693명을 대상으로 시설 아동의 행동과 생활적응 정도를 일반아동에 비교해서 상대 평가하도록 했

다.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분석과 서술형 질문을 통한 질적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구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시설아동의

전반적 상황을 알아보면, 가족해체가 증대되어 양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아동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시설아동의 일반적 건강이나 발육·영양은 일반가정의 아동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일반 가정이나 부모가 심한 갈등을 보이는 경우보다 오히려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가 볼 때 시설아동은 대체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두드러지게 외부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급우들과 잘 싸우거나 갈등이 심하지 않고, 시설아동이라서 따돌림을 받는 일도 교사들은 적게 추정했다. 그러나 학급활동에 소극적이고 친구가 적으며 인내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적 위축 경향과 피해의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부진이 학교 생활 적응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셋째, 통계 분석 결과에 나타난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문제행동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지닌 환경적 요소보다 발달단계가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역간의 생활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아동과 비교해 시설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고등학

생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심리적 적응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행동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방형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교사들이 시설아동을 지도하면서 느낀 개인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서술형 질문을 이용한 질적 분석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나, 교사들은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약 70%)의 시설아동은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유연성이나 적응능력이 단순히 시설보호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약 30%의 시설아동은 사회생활을 잘 해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아동기의 시설보호는 여전히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 이 많은 것이다.

둘, 교사들 대부분이 시설아동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민감한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교사들은 되도록 편견 없이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 교사들은 정서적 불안, 자신감의 상실, 의지의 부족 등이 시설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비교적 큰 문제로 평가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으로 도벽, 낭비, 거짓말, 공격성 등을 들고 있다. 시설아동의 도벽이나 회박한 경제 관념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소유의 관념이 별로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을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사들은 응답하였다. 학습부진은 성장 할수록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며 시설아동의 학교 적응, 자신감 확립, 시설 퇴소 후 진로나 자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넷, 시설아동의 적응에 시설보호를 받게 된 원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망보다 이혼이나 유기로 인해 보호시설에 가게 된 경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시설아동의 경우 부모의 사망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지울 수 없어 분노와 절망이 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부모의 사망 유무와 시설입소가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시설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시설아동의 발달단계이다. 많은 교사들이 초등학교 때 잘 적응하는 시설아동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적응의 문제를 많이 나타낸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심리적 적응을 보이고 문제 행동도 적다는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분석 결과와 상반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급 학생 중에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초등학생(1.59%), 중학생(1.13%), 고등학생(0.57%)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보호학생 중에서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최근에 경제위기와

급속한 가족해체에 따른 요보호아동 발생 증가를 들 수 있다. 가족해체를 겪을 시기에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시설입소보다는 형제간에 지낸다거나 친·인척집에 잠시 기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고 여겨진다. 가족해체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설에 입소한 초등학생은 이미 시설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중·고등학생보다 부모를 잊은 상실감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기 쉽다. 이에 따라 설문지를 이용한 교사들의 답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일반적으로 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시설보호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입소아동이 보호시설에 적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매년 보호시설 입소아동의 수와 퇴소아동의 수를 비교해보면 많은 수의 시설아동이 중도에 시설을 이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국내 입양이 매우 드문 상황을 고려하면 시설아동수의 감소는 진학에 실패한다든지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는 시설보호청소년이 심한 성장과 정의 불연속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한국청소년학회편, 1999).

시설아동의 가출이나 학업중단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시설아동이 적용 상황에 따라 양분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시설아동중에 시설생활에 적용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아동과 사춘기 이후 시설에서 떠나 학업을 중단하는 아동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교사들이 이러한 시기에서 방황하는 시설학생을

접할 경우 초등학생 때는 잘 적응하다가 성장하면서 문제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통계분석에서 보인 결과 즉,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설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다른 연령 집단(초등학생·중학생)에 비해 긍정적이고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서도 각 문항에서 긍정적 사회심리적응을 보인 것과 시설아동의 비율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드는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수의 청소년기 시설아동들이 보호시설에서 이탈하고 학업을 중단한다면 이들의 행동과 발달 및 부적응 원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시기에 시설아동이 결정적으로 심리적 방황을 겪고 일탈을 경험하는지, 사춘기의 불연속적인 성장과정을 극복하고 시설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으로 양분된다면 이들 아동들은 각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 조사에 응한 교사들의 답변을 통해 시설아동의 문제점이 단기적으로 향상되기 어렵고 학교와 보호시설 및 관련 행정기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ranklin & Streeter, 1995).

많은 교사들이 시설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학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후반과 청소년기의 시설아동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보호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하여 보호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사가 시설보호학생의 생활을 모르는 경우에 효율적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주다. 교사가 일반가정학생과 시설보호학생의 다른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방문이나 보육사와의 교류가 필요하고 시설아동 지도·상담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아동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 교사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할 모델의 발굴 및 홍보도 시설아동의 자긍심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일반가정의 급우들이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상당수 시설아동들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안 되었거나 가족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 때문일 수도 있다. 교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또래간 적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업부진은 시설아동이 지닌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부진이 심해지는 것을 볼 때 기초학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대학생과 연계해서 개인교사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학생간에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호시설과 학교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김준호, 1996).

이 연구는 시설아동의 적응 및 문제행동에 대해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교사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시설아동과 비교를 위해 짹지어진 일반가정아동 집단이 규정되지 않았고 연구의 특성상 설문지가 비교적 포괄적 평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보다 세부적인 시설아동의 적응 양상과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강복정 · 이정덕 (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연구-건강가족적 관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 153-182.
- 권이종 (1996).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 양서원.
- 김민자 (1991). 일반 및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호 (1993).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요인과 그 대응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1996).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책. *청소년문제연구보고*, 14. 서울특별시청소년사업관.
- 노혜련 · 장정순(1998).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65-92.
- 박태영 (1991). 육아시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 연구, 7.
- 변용찬 · 이상현 (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수행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1). 아동복지보건과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신소희 (1984).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고아원의 남녀 중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안진 · 민하영 (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5), 97-109.
- 유안진 · 민하영 · 권기남 (2001).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이배근 (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 46-57.
- 이순형 · 이강이 · 성미영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38(11), 181-191.
- 주정일 · 이소희 (1989). *아동복지학*. 서울 : 양서원.
- 통계청 (2001). 2000년 인구동태통계연보 : 혼인 · 이혼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학총론*. 서울 : 양서원.
- Bowlby, J. (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2nd ed.). Middlesex, England : Penguin Books.
- Frank, D. A., Klass, P. E., Earls, F., & Eisenberg, L. (1996).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orphanages : One view from pediatrics and child psychiatry. *Pediatrics*, 47(4), 569-578.
- Franklin, C., & Streeter, C. L. (1995). School reform : Linking public schools with human service. *Social Work*, 40(6), 773-782.
- Kadushin, A., & Martin, J. A. (1988). *Child welfare service*(4th Ed.). New York : McMillian Publishing Co.
- Pringle, M. L., & Bossio, V. (1967). Early prolonged separations and emotional adjustment.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 37-48.
- Tizard, B., & Hodges, J. (1977). The effect of early institutional rearing on the development of eight-year-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 99-118.